10.15686/fkl.2026..68.76 OPEN ACCESS

# 민주화 이행기 『여성신문』의 여성문학 네트워크와 여성해방 민주주의

## -편집주간 고정희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혜진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전임연구원

목차

1 들어가며: 『여성신문』의 여성주의 언론문화운동 지형
2 신문의 편집·발행 주체들과 여성문학 네트워크
3 여성문학의 대중적 실천의 활성화
4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과 문화기획
5 나가며: 민주주의의 여성문화운동적 이행

이 글은 여성신문사의 연구 지원을 받은 '여성신문 연구팀(김정은, 윤조원, 임진하, 정고은, 정혜진)'에서 『여성신문』을 함께 읽고 공부한 결과물이다.

## 국문초록

본고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행기에 상업적 대중지와 운동적 정론지의 이중적 지형을 가로지르며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추구한 『여성신문』의 언론문화운동을 조명한다. 특히 초대 편집주간 고정희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초기 『여성신문』의 '여성문학 네트워크'와 '여성해방 민주주의'를 고찰하며 민주주의의 여성문화운동적 이행을 논한다. 이행기의 제도적 변화와 여성운동의 역량 속에서 탄생한 『여성신문』은 여성주의 문화예술과 결합하며 여성연대·문화연대의 거점으로 기능했다. 그 여성문학 네트워크는 고정희의 사임 후에도 지속되어 여성문학의 대중적 실천을 활성화했고,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기획과 연계됐다. 『여성신문』은 전민련 가입 여부와 관련된 여성운동 대중화의 두 방향을 아우르는 토대가 되어,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의 다채로운 공명을 보여주면서 민주주의를 여성문화의 실현으로 의미화하고 고정희 시의 민주주의 지평을 심화시켰다. 또한 주간지 형식으로 상업성과 운동성이라는 민주화 이행기의 모순된 과제를 수용했다. 여성문학은 그러한 이중적 대중매체성을 체현하며 체제 변혁적 전망을 『여성신문』에 새겨놓았다. 이 같은 『여성신문』의 여성주의 저널리즘은 오늘날 '성평등 민주주의' 운동의 전사(前史)로서, 이행기 여성문학의 문화운동적 역동과 급진적 지평을 드러내보인다.

국문핵심어: 여성신문, 여성문화운동, 여성주의 언론문화운동, 여성주의 저널리즘, 여성운동의 대중화, 여성문학 네트워크, 여성해방 민주주의, 고정희

## 1 들어가며: 『여성신문』의 여성주의 언론문화운동 지형

이 글은 『여성신문』이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행기에 여성주의적으로 개입하며 전개한 언론문화운동에 주목해, 그 여성문학 네트워크와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기획을 고찰한다. 『여성신문』 창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1987년 6·29 선언 이후, 같은 해 11월 11일에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신문 발행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신문 창간이 급증한 것이었다. 6·29 선언 이듬해에 일간

지는 두 배 이상, 주간지는 세배 이상, 월간지는 1.6배 이상 증가했다.[1] 『여성신문』 또한 이러한 배경하에 국민주 모금으로 창간의 토대를 마련해 1988년 8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식 출범하였다.[2] 그러나 『여성신문』의 출범은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흐름 속에서 이미 싹트고 있었다. 크리스챤 아카데미 여성사회연구회 회보 『여성신문』(1985~1987)과 그 후신인 주간 『여성신문』(1988~)[3]은 여학생 교지·학보,[4] 여성단체 회보(기관지),[5] 대중매체 모니터팀[6] 등과 함께 1980년대에 여성주의 언론문화운동을 형성했고, 이는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구현하는 주요하고 다양한 움직임이었다. 특히 주간지 『여성신문』은 당대 여성문화운동과의 관계를 표방하며 창립하였고 여성문화운동 관련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면서 여성예술가, 여성문화운동가들과 협업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발신했다. 이러한 『여성신문』은 1980년대 여성주의 문화예술과 여성언론의 상호형성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7]

---

1 전영우, 「[인천미디어변천사]언론기본법 폐지와 언론 통제」, 『인천투데이』, 2022.11.21.

2 김효선, 「[김효선 칼럼]'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가던 길 가자」, 『여성신문』, 2022.11.11.

3 여성신문사, 「1985년 '여성신문', 여성사회연구회 회보로 출발」, 『세상을 바꾼 여성 사건 101가지: 여성신문 뉴스 20년사, 한국 여성 20년사』, 여성신문사, 2008, 17쪽.

4 원혜빈, 「1980년대 '여학생'의 문화정치: 남녀공학 대학 여학생 교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5 1980년대 여성단체 기관지는 여성주의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적 선전을 수행하는 매체로 인식되었고, 『여성신문』과 상호 비교되며 그 위상이 평가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경우는 기관지를 구독하는 회원을 '신문회원'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여성매체의 활성화, 여성운동의 발전으로 가능」, 『이대학보』, 1989.09.25.

6 황오금희는 1980년대 후반에 여성단체들이 활발히 진행한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여성언론운동의 일환인 미디어 여성운동의 사례로 조명하였다. (황오금희, 「여성주의 매체와 여성운동」, 『여/성이론』 제8호, 도서출판여이연, 2003, 40쪽.) 한국여성민우회의 경우 1989년 2월, 여성·어린이·청소년 문제 관련 프로그램 모니터 활동을 하는 모니터팀을 결성한 후 언론·미디어운동을 전개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개 및 가입 팜플렛]」,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39177 (최종접속일: 2026.01.04.)

7 『여성신문』을 통해 1980년대 여성주의 문화예술과 여성언론의 상호형성적 관계를 주목하며 '여성문학 네트워크'를 조명하는 본고는 여성해방문학이 근대적 저자성을 넘어 "상호

특히 『여성신문』이 여성주의 문화예술과 결합하며 전개된 배경에는 '여성운동의 대중화'와 '문화예술의 저널리즘적 전환'이라는 두 차원이 놓여 있었다. 먼저 '여성운동의 대중화'는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전후 변혁운동의 연대세력이 광범위하게 구축되면서 엘리트 중심성을 넘어 운동적·매체적 역량으로서 대중성이 부상한 맥락과 공명하며,[8] 여성연대를 확장하고 여성주의를 급진화하는 전략적·담론적 표어였다. 또 하나의 문화(또문)는 1986년 하반기에 여성미술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성운동의 대중적 역량을 모색한 이래 여성미술과 여성문학의 공동작업, 나아가 다양한 장르와 전위 예술을 포괄한 여성문화제의 기획으로 새로운 여성문화와 공동체를 창출하며 여성운동을 대중화하고자 했다.[9]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 또한 창립하면서부터 '여성대중운동'을 표방했다. 민우회는 "성평등한 민주사회와 여성대중운동을 지향"한다는 창립취지를 밝히며 여성대중의 생존권 투쟁과 광범위한 참여를 기반으로 한 운동을 주장했고, 차이를 넘는 여성대중의 결집을 강조했다.[10] 1988년에는 "대중 여성운동단체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회보 『함께 가는 여성』을 발간해, 여성대중의 민주적 권리 획득과 여성운동 확산, 타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한 여성대중의 권익 확보 및 정치세력화를 도모했다.[11]

---

참조와 이해, 연대라는 행위 속에서 형성되는" 집단적인 것임을 강조한 이혜령의 문제의식을 잇는다. 특히 이혜령은 "여성해방문학사의 실천적 구성"을 역설하며,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을 "성차별적 젠더 체계에 대한 비판과 종식을 위한 글쓰기를 포함한 다양한 표현 행위에 대한 아카이브의 축적 속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무크지, 교지, 회보, 나아가 "현재로서는 재연되기 힘든 모임과 조직에 관한 참여자들의 회고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고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서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과 여성주의 언론문화운동의 관계를 밝힌다. 이혜령, 「여성해방문학의 저자란 무엇인가」, 『문학과 사회』 제125호, 문학과지성사, 2019, 71-72쪽.

8 1970~1980년대 문화운동의 대중화론이 노동자대투쟁 이후 보인 질적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이영미, 「한국 근·현대 예술운동의 대중화론, 그 쟁점과 허실」, 『민족문화연구』 제61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9 정혜진, 「고정희 여성해방시의 집합적 형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118-126쪽.

10 한국여성민우회, 「창립선언문」, 1987.09.12.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https://womenlink.or.kr/55 (최종접속일: 2026.01.04.)

『여성신문』도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며, 「창립발기 취지문」에서 "한국 여성운동은 이제 대중운동으로서의 확산이라는 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12]다고 밝힘으로써, 그 성숙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매체임을 알렸다. 이러한 대중화의 문제의식에서 『여성신문』의 창간은 "여성들만의 울타리를 넘"은 민주의지의 소산이자, 여성의 비전과 인간회복을 실현하는 민족언론의 출발로 의미화되는 한편, 여성운동의 연대의식을 고양하는 실천으로 제시되었다.[13] 이와 관련해 『여성신문』의 초대 편집주간 고정희는 "여성언론 정립의 궁극의 목적은 결국 모든 여성이 동반자적 자매애로 결속되어 해방의 주체로 떠오르고 그 힘을 통해 가부장권 지배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여성문화를 창출하는 것"[14]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대중매체로서 『여성신문』을 여성단체 회보와 차별화하며, 운동권과 보통 여성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로 규정하고, 젊은 주부, 사무직·근로직 여성, 여학생을 포괄하는 독자층을 제시했다. 또한 여성문제와 인간해방(인권·민주·민중)에 대한 분리적 사고를 극복하는 시도와도 연결지었다. 이러한 『여성신문』은 여성연대를 심화·확장하면서 민주주의를 여성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하는 대중화 전략을 가졌고, 『여성신문』의 민주주의 담론과 문화기획은 그러한 문제의식이 구체화된 양상을 잘 보여준다.

'문화예술의 저널리즘적 전환'은 저널리즘 글쓰기가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 이후, 그것이 1980년대에 문화예술 양식으로 적극 호명되기 시작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15] 1980년대의 저널리즘 글쓰기는 광주의 진상규명

11 한국여성민우회, 「1988년 활동계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857939 (최종접속일: 2026.01.04.)

12 「민족공동체 회복을 촉구한다: 여성신문사 창립발기 취지문」, 『여성신문』 제0호, 1988.10.28.

13 여기서 『여성신문』이 '여성들만의 울타리를 넘은 것'이라는 서술은 특히 『여성신문』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주주들의 구성과 성격을 반영한 표현으로 보인다. 고정희는 여성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진 이들이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도 '여성신문'보다는 '인권신문'이기를 강조하고, "왜 꼭 여성, 여성 하느냐는 여운을 남"겼다고 밝히며 그러한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고정희·지영선, 「[권두대담/0호를 내면서]한국여성 현실과 언론매체」, 『여성신문』 제0호, 1988.10.28.

14 위의 글.

에 대한 문제의식, 노동 수기의 성행,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체험이 계기가 되어 두텁게 수행됐다.[16] 그렇게 이뤄진 저널리즘과 문학의 만남은 '르포' 양식과 작가의 문학적 포섭 및 문인의 '르포 쓰기'로 구현되었고,[17] 나아가 르포와 시, 소설 장르의 결합, 르포에 국한되지 않는 저널리즘 실천과 문학의 폭넓은 상호작용으로 확장됐다. 그 여성주의적 맥락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성신문』이다. 『여성신문』에는 여성작가와 여성문화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여성신문』은 문화예술과 저널리즘의 여성주의적 결합이 전면화된 장이었다.[18] 이는 여성운동계·문화운동계 현황을 모아내는 지면을 통해 여성단체·문화운동단체들의 "활동을 기동성있게 알려주는 정보매체의 역할"[19]을 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됐다. 『여성신문』은 여성연대·문화연대의 거점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1980년대부터 활발히 전개된 여성문화운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주의 저널리즘을 여성문화운동의 차원에서 주목한 바는 드물다. 『여성신문』 창간의 맥락을 여성주의 매체운동의 측면에서 밝힌 연구,[20] 고정희와 또문의 여성문화운동과 박완서의 여성해방문학을 『여성신문』과 연계한 논의,[21]

15 최은아, 「1980년대 르포라는 재현 양식과 시대적 의의」, 『구보학보』 제25호, 구보학회, 2020, 171-173쪽.

16 김원, 「한국 현대사와 르포—망각된 목소리와 공감하다」, 『민중을 기록하라—작가들이 발로 쓴 현대사: 전태일에서 세월호까지』, 박태순 외 공저, 실천문학, 2015, 546-549쪽.

17 최은아, 앞의 글, 172-173쪽, 185쪽.

18 본고의 관심은 『여성신문』이 수행한 문화예술과 저널리즘의 여성주의적 결합을 성공과 실패의 프레임으로 논하기보다 그 맥락과 형식, 성격, 의의를 규명하는 데 있다.

19 「여성매체의 활성화, 여성운동의 발전으로 가능」, 앞의 글.

20 황오금희, 앞의 글, 59-70쪽.

21 이소희, 「고정희 글쓰기에 나타난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 연구—80년대 사회운동 및 사회문화적 담론과의 영향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298-303쪽; 이한나, 「1980년대 가족법 개정 투쟁과 박완서의 소설: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52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9-36쪽; 김은하,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팸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21쪽; 김정은, 「1980년대 여성주의 출판문화운동의 네트워킹 행위자로서 고정희의 문화적 실천」,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

1990년대 『페미니스트저널 if』와 〈달나라딸세포〉, 〈언니네〉의 저널리즘적 성격을 조명한 사례[22]가 있다. 그러나 여성문화운동으로서 수행된 저널리즘, 즉 여성주의 언론문화운동의 역사성이 더욱 본격적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신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고정희, 박완서와의 관계를 주목한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이소희[23]는 고정희의 언론활동을 1960년대부터 추적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여성신문』을 조명하며, 고정희가 주간으로 있던 초기 『여성신문』이 여성의 일상 문제를 정치화하고 여성민중들에게 다가가는 한편 여성연대의 어려움을 체험하게 했다고 논했다. 이 연구는 고정희의 언론운동 궤적을 밝히고 이를 문화운동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제시했으며, 『여성신문』을 역동적인 여성연대의 현장으로 규명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김정은[24]은 『여성신문』을 통해 고정희의 네트워킹 행위를 조명하며 여성들 간의 균열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뤘다. 여성운동 계파들의 경계에 섰던 고정희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여성신문』이고, 신문 지면은 다양한 여성 지식인들에게 개방됐으며, 그 네트워킹은 여성문학논쟁, 여성문인들의 참여, 고정희 시의 성억압 구조의 역사성·급진화와 관련됐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신문』의 다양한 여성 주체들과 내부 균열을 주목해 이를 고정희의 네트워킹 역할 및 당대 페미니즘 논쟁과 맥락화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혜진[25]은 『여성신문』이 여성문화운동을 담론화하면서 여성들의 문화실천을 묶어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고정희의 마당굿시가 '위안부' 운동의 저널리즘적 문제의식을 담고, 프로파간다 시가 여성대중을 변혁의 주체로 재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로써 『여성신문』이 당대 여성문화운동을 형성하고 고정희 시와 저널리즘을 결합하는 기초가 되었음을 밝혔다. 이한나[26]는 『여성

---

연구원, 2021, 56-68쪽; 정혜진, 앞의 글, 36-38쪽, 167-175쪽.

22 김명혜,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현황과 확산 전략」,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2001, 429-435쪽; 허윤, 「1990년대 페미니스트 여성 대중의 등장과 잡지 『페미니스트저널 if』의 정치학」, 『상허학보』 제53권, 상허학회, 2018, 92쪽.

23 이소희, 앞의 글, 298-303쪽.

24 김정은, 앞의 글, 56-68쪽.

25 정혜진, 앞의 글, 36-38쪽, 167-175쪽.

신문』의 창간을 가족법 개정운동의 맥락에서 조명하고, 신문 지면에 가족법 개정 관련 기사가 보도되는 가운데 박완서의 연재소설이 배치된 구조에 주목했다. 그리고 박완서 소설이 당대 여성운동과 차별화되는 상징적 해법으로 법 체계를 교란하며 가족법에 대항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여성신문』 창간의 역사성을 조명하고, 박완서의 여성문학을 당대 여성운동 및 신문의 매체성과 맥락화하며 그 문학적 위상을 논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들은 『여성신문』과 고정희, 박완서의 관계를 바탕으로 『여성신문』의 여성연대, 네트워크, 문화운동·여성운동적 성격에 주목하며 두 작가와 그들 작품의 여성주의 면모를 고찰했다. 그로써 고정희의 문화운동가 역할이 확장적으로 논의됐고, 고정희 시의 언론문화운동 맥락과 여성운동에서 박완서 소설의 위상이 조명되었다. 그런가 하면 『여성신문』 자체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신문』에서 여성작가들의 역할과 위상, 이를 통해 『여성신문』을 논한다는 것의 의미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 『여성신문』의 더 많은 문화 주체들을 조명하고 여성들 간의 연결과 긴장의 양상을 구체화하는 것, 『여성신문』의 문화운동적 성격에 주목해 문화예술 지면의 매체성과 그 수용을 입체적으로 고찰하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여성신문』을 민주화 이행기라는 역사적 맥락 및 여성운동의 대중화라는 문화운동적 목적과 관련하여 논하면서, 편집주간 고정희와 상호작용한 여성문학 네트워크와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기획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여성신문』의 여성문학과 민주주의 실천을 고찰함으로써 여성주의 언론문화운동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여성신문』의 여성주의 언론문화운동의 성격이 형성된 초기 1여년(창간 1년, 1988.10.28.~1989.12.29. 0~55호)을 살핀다. 이는 고정희 초대 편집주간의 재임 시기(1988.10.28.~1989.07.28. 0~34호)를 포함하는 기간이자, 그의 사임 이후 신문의 성격이 변화-지속되고 방향의 재모색이 이루어진 때이다. 또한 민주화 이후를 여성해방의 시간으로 이행시키는 여성들의 열기와 긴장이 집약된 결정적인 순간이다. 허민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91년 5월 투쟁의 종결까지를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아래로부터의 변혁, 동구권 붕괴, 냉전

26 이한나, 앞의 글, 19-36쪽.

질서 해체가 공존한 '민주화 이행기'로 명명했는데,[27] 『여성신문』은 민주주의의 페미니즘적 이행과 자본의 경합, 포스트냉전 맥락이 초기 1년간 뚜렷이 드러난다. 본고는 『여성신문』에서 여성해방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그 경합 국면에 주목해 창간 1년간의 지면을 분석하고, 고정희와 함께 신문을 만든 편집부장 박효신, 편집위원 박혜란, 기자 박혜숙, 객원 기자(현 대표) 김효선과의 인터뷰를 수행하여 연구의 토대로 삼았다.

## 2 신문의 편집·발행 주체들과 여성문학 네트워크

『여성신문』의 여성주의 언론문화운동의 성격은 발행인 이계경과 편집주간 고정희, 그리고 편집진의 언론·문화운동 이력이 큰 자원이 되었고, 이를 토대로 크리스챤 아카데미와 또문을 중심으로 하는 폭넓은 여성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먼저 발행인 이계경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에 크리스챤 아카데미에서 여성중간집단교육을 이수한 후, 가족법 개정운동과 대학가 메이퀸 선발대회 폐지운동을 전개하다가 '청년여성운동연합회'를 조직했다. 청년여성운동연합회에서는 해직교수 강좌와 텔레비전 드라마 모니터링 운동을 진행하고, 자금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레코드 가게 사업을 벌였다. 문화운동에 매진해 연극 「아내란 직업을 가진 여자」(1976), 「부부연습」(1977)을 공연하고, 이화여대에 '이화여대 중간집단 육성팀'을 만들었다. 또한 이계경은 1983년에 청년여성운동연합회 멤버들과 '여성의 전화'를 창립해 초대 총무를 맡았으며, 1984년에는 크리스챤 아카데미 여성사회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1985년 10월에 회보 『여성신문』을 창간하였다.[28] 신문이 호응을 입고 자리를 잡아가자 정식 신문사로 등록

27 허민, 「민주화 이행기 한국소설의 서사구조 재편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11쪽.

28 회보 『여성신문』은 크리스챤 아카데미 여성사회연구회가 1978년에 발행했던 회보 『여성사회』를 제호를 변경하여 재발간한 것이다. 제호 변경은 당대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흐름과 연동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사회연구회는 회보 『여성신문』 창간을 위해 1985년 5월에 편집위원 교육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챤 아카데미가 1970년대에 중간집단교육의 일환으로 '여성 언론인 교육'을 진행한 바 있고, 이는 "가장 중요하고

하여 여성 정론지를 만들기로 계획해, 6·29선언 이후 1988년 봄부터 주간 『여성신문』 창간 준비에 돌입했고 초대 발행인을 역임했다.[29]

고정희 시인이 『여성신문』의 초대 편집주간을 담당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또문 동인인 여성학자 박혜란의 영향이 있었다. 여성신문 연구팀이 진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박혜란은 이화여대에서 여성학을 공부한 후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주부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며 이계경과의 인연이 있었고, 『동아일보』 기자로 6년간 재직한 경력 또한 있었다. 이계경은 여성학자이자 언론인으로서 이력이 부합했던 박혜란에게 편집주간을 제안했으나, 박혜란은 당시 언론사에 매이지 않고 강의 활동에 전념하고자 주간직을 고사하고 고정희를 추천한 후, 편집위원으로 협력했다.[30] 결과적으로 고정희가 『여성신문』의 편집주간을 맡게 된 것 또한, 크리스챤 아카데미, 가정법률상담소, 또문 등에서의 출판·편집 경험과 『월간 해남』, 『주간 전남』에서의 기자 경력[31] 등 그가 쌓아 온 편집자와 언론인 활동에 부합하는 행보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고정희, 박혜란, 이계경의 여성문화운동 경험이 맞물리며 『여성신문』의 여성문화운동적 기조, 즉 "여성문화 운동의 방향과 이론 정립에 따른 언론기능에 충실"[32]하겠다는 지향점을 형성한 것으로

---

효과가 큰 교육으로 평가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여성언론인 교육은 1976년 4월 22~25일에 개최되었으며 일간지, 주간지, 라디오 방송, 대학신문 등에서 참가하였다. 그 목표는 "한국사회에 여성문제를 부각시키고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매개체로서 언론인 중간집단화였"으며, 여기자 클럽 활성화, 여류방송인 클럽 활성화, 대학 여성 언론인 단체 발족 등을 과제로 삼았다. 여성사회연구회, 『10년의 발자취』, 여성사회연구회, 1986, 10-11쪽; 이정자, 『이 얼마나 멋진 배움이었나: 크리스챤아카데미와 한국여성인간화운동의 아름다운 동행』, 여해와 함께, 2025, 119-149쪽.

29 이계경, 『세상을 바꾸는 신나는 리더』, 여성신문사, 2007, 1-74쪽.

30 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3.13. 박혜란과의 인터뷰는 2026년 3월 13일에 서울시 서초구 인근에서 박혜란의 구술과 김정은·윤조원·임진하·정혜진의 채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31 고정희의 『월간 해남』, 『주간 전남』 기자 활동은 다음을 참고. 이소희, 앞의 글, 234-245쪽.

32 「민족공동체 회복을 촉구한다: 여성신문사 창립발기 취지문」, 『여성신문』 제0호, 1988.10.28.

보인다.

이 같은 경로로 이계경이 경영을, 고정희가 편집을 주관하며 운영된 여성신문사는 편집위원회를 조직하고 각종 위원들을 위촉하여 지면을 기획했으며,『여성신문』0~9호에 실무진을 공개하였다. 그중 발행·편집진과 위원 명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직책 | 성명 | 소속 | 비고 |
|---|---|---|---|
| 발행인 | 이계경 | | 크리스챤 아카데미(여성사회연구회) |
| 편집주간 | 고정희 | | 또문, 크리스챤 아카데미(출판 담당 간사) |
| 편집부장 | 박효신 | | 크리스챤 아카데미(여성사회연구회) |
| 편집위원 | 김경애 |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크리스챤 아카데미(여성사회연구회) |
| | 박혜란 | 상명여대 강사 | 또문, 크리스챤 아카데미(주부아카데미) |
| | 이상화 |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 또문, 크리스챤<br>아카데미(여성중간집단교육) |
| | 이은영 |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 이계경 인맥 |
| | 장필화 |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또문, 크리스챤<br>아카데미(여성사회연구회) |
| | 조형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또문 |
| | 차미례 | 전 출판저널 주간 | 고정희 인맥 |
| 컬럼위원 | 김민숙 | 소설가 | 고정희 인맥, 민족문학작가회의<br>여성문학분과위원회 |
| | 문정희 | 시인 | 고정희 인맥, 민족문학작가회의<br>여성문학분과위원회 |
| | 박혜란 | 독문학 | 또문 |
| | 오정희 | 소설가 | 고정희 인맥 |
| | 장필화 | 앞과 동일 | 앞과 동일 |
| | 황루시 | 관동대 국문과 교수 | 고정희 인맥 |
| 논설위원 | 김애실 |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br>교수 | 또문 |
| | 김주연 | 숙명여대 독문과 교수,<br>문학평론가 | 고정희 인맥 |

| | | | |
|---|---|---|---|
| | 송보경 | 서울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
| | 이명헌 | | |
| | 이인호 |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또문, 크리스챤 아카데미 (여성중간집단교육) |
| | 이태영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크리스챤 아카데미(여성중간집단교육) |
| | 이효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크리스챤 아카데미(여성중간집단교육), 한국여성민우회 |
| | 조은 |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 또문 |
| | 조형 | 앞과 동일 | 앞과 동일 |
| | 최열 | 공해추방운동연합 의장 | |
| | 한명숙 | 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 | 크리스챤 아카데미(여성사회 간사) |

[표 1] 『여성신문』 0~9호 발행·편집진과 위원 명단[33]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여성신문』 초기 위원들은 대체로 크리스챤 아카데미 관련자 혹은 또문의 구성원이거나, 이계경과 고정희의 인맥이었다. 특히 크리스챤 아카데미 여성사회연구회의 회보 『여성신문』과 또문의 무크지를 발간해 온 이들이 편집·발행 주체로 합류해 주간 『여성신문』의 기틀을 잡았다. 그 외에도 크리스챤 아카데미에서 여성중간집단교육 관여자나 여성사회 간사로서 여성운동을 해온 이들, 또문 동인이면서 크리스챤 아카데미 관련자이기도 한 인물들이 『여성신문』 위원으로 여럿 합류하고 신문의 고정 지면을 구성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여성신문』은 이후 51호(1989.12.01.)에서 다시 편집위원과 논설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편집위원으로는 박혜란, 장필화, 우명미(또문), 신희운(YWCA 실행위원), 홍명진(동아방송 아나운서)이, 논설위원으로는 조성숙(『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조형, 한명숙, 이은영이 재임하며 인적 구성이 다소 변화하

33 표의 내용은 다음을 참고. 『여성신문』 0~9호; 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3.13.; 고혜련, 「[크리스챤 아카데미]'막강 여성'의 산실로 성장」, 『중앙일보』, 1998.05.14.; 여성사회연구회, 앞의 글, 11쪽; 이정자, 「[특별 기고]⑤ 교육생들, 진보여성운동의 기반에 서다」, 『여성신문』, 2026.03.10.

고 축소된 것이 확인된다. 특히 컬럼위원직이 사라지며 문인과 사회운동가, 고정희의 인맥이 위원 명단에서 축소·제외되고, 또문 동인과 여성 연구자들의 참여 또한 감소했다. 이는 고정희 사임(34호) 이후, 『여성신문』이 운영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성격을 조정한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성신문』의 위원뿐 아니라 지면에서도 여성운동, 여성문학, 문화운동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특히 고정희 편집주간 시기의 『여성신문』은 고정희와 또문과 관련된 여성운동·여성문학 네트워크가 중요한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혜정, 조형, 조은, 조옥라, 박혜란, 장필화, 이상화, 김애실, 이인호, 김효선 등 또문 동인들이 편집위원과 필진, 기자로 참여했고, 강미숙, 강은교, 김민숙, 김인숙, 김승희, 김혜순, 김향숙, 문정희, 박경리, 박완서, 송우혜, 엄인희, 오정희, 유시춘, 윤정모, 이경자, 이남희, 장정임, 차정미, 천양희, 최현무 등 여성 작가들의 작품·칼럼·인터뷰·구술이 게재됐다. 또문, 고정희와 관련된 여성미술가 윤석남, 김진숙, 김점선, 김용님 등의 작품이 신문 표지에 삽화로 수록됐다. 또한 고정희가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주목했던 여성운동단체(또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교여연), 한국여신학자협의회)와 여성문화운동(미술전시, 시화전, 영화제, 노래공연, 마당극, 출판, 여성대회 등)의 소식이 보도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태영, 김동자,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이우정, 광주YWCA 조아라, 여성신학자 박순경, 평민당 박영숙, 민우회 한명숙, 이화여대 이후정 등 기독교계 여성운동가들도 논설위원과 필진, 인터뷰이로 참여했는데, 이러한 인적 구성은 고정희와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네트워크였다.

여성신문 연구팀의 인터뷰에 의하면, 고정희는 주간으로서 편집위원회 및 기자단과 지면을 기획하고, 위원을 위촉하며, 필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최종 편집을 하고, 편집자 주를 달며, 헤드라인(제목)을 뽑는 방식으로 신문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았다. 나아가 기자들을 훈련시키고, 기사를 한 줄 한 줄 교정하고, 직접 집필하기도 했다. 『여성신문』의 초기 편집부장을 역임한 박효신에 따르면 이러한 고정희의 업무는 말도 못하게 과중해 그야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수준이었다고 한다.[34] 고정희는 신문에 주요한 정치적 사건의 논평('사설'[35]), 독자에

34 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3.13.; 박혜숙과의 인터뷰, 2026.03.25.; 김효선·박효신·박혜

게 발신하는 연대의 편지(‘독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명사 인터뷰(‘권두인터뷰’ 등)와 자신의 문학(「학동댁」)을 수록했다. 여성구술사를 연재하는 ‘이야기여성사’의 기획, 풍자적·문학적 사회비판을 하는 ‘바늘방석’, ‘오감도’, 민주적 동지관계의 다양한 양상을 소개하는 ‘우리는 동지’ 같은 지면에서도 고정희의 흔적이 발견된다. ‘오감도’에는 칠레의 여성시인 가브리엘 미스트랄의 시 「집」을 한국 현실에 적용해 오마주한 시구가 실리기도 했는데, 이는 후에 필리핀에서 집필된 고정희의 시 「밥과 자본주의—밥은 모든 밥상에 놓인 게 아니란다」(1991)로 개작되었다.[36] ‘우리는 동지’의 코너명 또한 필리핀에서 창작된 고정희 시, 이건용 곡의 여성노래 〈그대는 여자, 우리는 동지〉(1991)[37]로 이어졌다. 고정희는 여성신문사 퇴사 후에도 축시, 인터뷰, 여성문학상 심사, 인물동정 등으로 『여성신문』과 인연을 이어갔고, 『여성신문』은 그의 시 쓰기와 문화운동의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었다.[38]

---

란과의 인터뷰, 2026.04.10. 박혜숙과의 인터뷰는 2026년 3월 25일에 서울시 강남구 인근에서 박혜숙의 구술과 윤조원·임진하·정혜진의 채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김효선·박효신·박혜란과의 인터뷰는 2026년 4월 10일에 서울시 종로구 인근에서 김효선·박효신·박혜란의 구술과 김정은·윤조원·임진하·정고은·정혜진의 채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35 박혜란은 고정희와 자신이 『여성신문』의 사설을 집필하곤 했다고 밝혔다. 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3.13.

36 「오감도」, 『여성신문』 제22호, 1989.05.05.; 고정희, 「밥과 자본주의—밥은 모든 밥상에 놓인 게 아니란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창작과비평사, 1992, 23-25쪽.

37 이 노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 정혜진, 앞의 글, 211-213쪽.

38 본고는 편집주간 고정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글을 썼는지보다는 그의 글과 역할이 『여성신문』의 여성문학 네트워크와 여성해방 민주주의에 관해 어떠한 상호작용을 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아울러 신문 특성상 다수의 기사가 무기명으로 수록돼 명확한 저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고정희 또한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인터뷰, 시, 소설 등을 직접 게재하기도 했지만 ‘사설’을 비롯해 많은 기사를 무기명으로도 썼다. 고정희의 글을 총망라하기보다 편집주간 위치와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조명하는 본고의 작업은 이러한 구조를 다루는 것이기도 하다. 고정희의 기획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야기여성사’나 여성문학상처럼 고정희가 기획한 것으로 특별히 회고되는 기사나 제도도 있으나 『여성신문』의 수많은 기획 자체는 편집진·기자단의 공동작업의 산물이다.

편집주간, 편집부장, 편집위원들이 참여한 편집위원회 회의는 주 1회 개최되었다. 편집국(편집주간·편집부장)과 기자단의 회의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편집해 신문이 발행되면, 편집위원회는 지난 호 신문을 평가하고 차기 및 장기 기획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신문 필진을 직접 선정했으며, 광고 수록 등 편집주간이 경영진과 논의 중인 사안을 회의에 부치면 편집위원회 명의로 의견을 개진하며 주간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후 편집위원회에서 제시된 기획 방향을 편집국이 반영하고, 기자단과의 회의를 통해 기획 주제와 취재·조사 대상을 구체화한 후, 기자별 담당 분야에 따른 기사 배분·작성 및 편집 과정을 거쳐 신문이 제작되었다.[39]

이 같은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하되, 당시 편집위원이었던 박혜란은 기사가 부족할 경우 고정희와 자신이 기사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했다고 밝혔다.[40] 또한 박혜란은 지면을 통한 독자 상담 코너인 '여성신문 상담실 정의반'을 운영하기도 했는데,[41] 『여성신문』 자체 상담 창구인 '정의반'은 0호부터 20호까지 유지되었고 21호부터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협력해 상담 지면을 이어갔다. 이들 단체는 편집위원회와 더불어 『여성신문』 지면을 매개로 독자들과 호흡하며 여성문화운동을 전개한 주요 주체였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 밝혔듯 편집주간 고정희는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여성신문』에 활용해 서로 다른 영역의 여성 주체들을 모았고, 필진으로 참여한 여성 문인들 또한 그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42] 『여성신문』의 여성문학 네트워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또문, 여성사연구회, 민족문학작가회의(민작) 여성문학분과위원회를 아우르며, 일차적으로 고정희의 활동 반경과 관

39 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3.13.; 박혜숙과의 인터뷰, 2026.03.25.; 김효선·박효신·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4.10.

40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박혜란은 『여성신문』 창간 1주년 기념식에서 고정희와 함께, "창간 준비모임 때부터 시작된 편집회의에 개근"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여성신문 일주년 기념식 성황리 마쳐」, 『여성신문』 제53호, 1989.12.15.

41 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3.13.

42 김정은, 앞의 글, 62쪽.

련된다. 고정희는 또문에서 여성해방문학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민작이 창립된 1987년부터 이듬해까지 산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성문학분과위원회 위원장 노영희와 함께 에세이집 『울타리를 넘어서』(1987), 무크지 『여성운동과 문학 1』(1988)을 발간했다.[43] 『여성운동과 문학 1』에는 여성사연구회 회원의 글이 실리기도 했다. 『여성신문』에 참여한 여성작가들 중 김인숙, 김민숙, 김향숙, 박경리, 문정희, 송우혜, 유시춘, 윤정모는 민작 회원이었다. 김승희, 천양희, 최현무는 또문과 교류했으며, 강미숙은 여성사연구회 문학분과 회원이었고, 강은교, 김혜순, 박완서, 엄인희, 이경자, 이남희, 장정임, 차정미는 또문과 관계맺는 동시에 민작 회원이기도 했다. 고정희는 『여성신문』을 거점으로 개별 조직을 가로질러 여성작가들을 매개하며 여성문학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는 그가 또문과 민작에서 해왔던 일을 적극적으로 확장한 것이었다. 그러한 네트워크 확장은 고정희의 개인적 역량을 넘어 『여성신문』이라는 광범위한 대중운동의 장이 있었기에 수행될 수 있었던 여성문학의 연합의 사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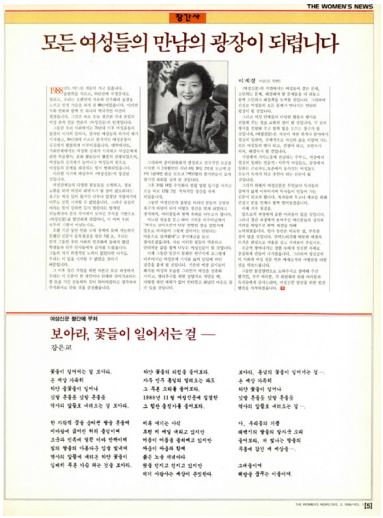
고정희의 퇴사 후에도 『여성신문』에서는 또문 동인인 편집위원 박혜란, 장필화와 기자 김효선이 활동하면서 여성문학 네트워킹을 지속하였다. 일례로 소설가 이남희는 『여성신문』 7호에 「소득의 재분배」라는 칼럼을 쓴 후 36~48호에도 소설 「둘이 또는 혼자서」를 연재했으며, 시인 김혜순은 6호에 신년축시 「기쁜 원년을 향하여」를 게재한 후 37호까지 수필을 실었다. 극작가 엄인희의 경우 23호에 연극 「마침내 가리라」 연출가로서 인터뷰를 했다가, 42호에 산문집 『깃발을 날리는 바람은 힘차다』 출간 인터뷰가 실린 후, 49~51호에 단편소설 「새벽 안개가 걷혀온다」를 연재했다. 55호에는 김승희의 송년시 「80년대여, 안녕」과 이경자의 송년 에세이 「여성이 일어섰다—낱낱의 하나에서 어깨동무 우리로」가 게재되기도 했다. 이처럼 여성작가들은 『여성신문』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며 다양한 독자대중과 만났다.

43 1990년에 고정희는 여성문학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여성운동과 문학 2』를 발간했다.

### 3 여성문학의 대중적 실천의 활성화

『여성신문』에서는 앞서 살펴본 여성문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특히 문화예술의 대중적 실천이 활성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여성주의 기념문학과 여성 수필이 부상하였다. 둘째, 『여성신문』 독서와 창작 과정이 결합되었다. 셋째, 여성해방문학의 제도화가 시도되었다. 이 실천들은 곧 여성문학 네트워킹이 작동하는 과정이었다.

먼저 여성주의 기념문학이란, 여성운동 조직 및 그 이벤트에 관해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며 집합적 정동을 고양하는 문학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주의 기념문학의 프로파간다적 성격은 여성조직의 결성을 역사적 사건으로 명명하며 그 의의를 환기하고 여성들을 응집하는 '출범 선언'과 여성운동을 기리는 '기억 정치'를 반복적·선동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여성신문』은 기념문학으로 강은교, 김혜순, 고정희의 축시와 김승희, 이경자의 송년시, 송년 에세이를 게재했는데, 먼저 강은교와 김혜순의 시를 살펴보겠다.


THE WOMEN'S NEWS

창간축

모든 여성들의 만남의 광장이 되렵니다

여성신문 창간에 부쳐

보아라, 꽃들이 일어서는 걸 —

강은교

[그림 1] 강은교, 「여성신문 창간에 부쳐: 보아라, 꽃들이 일어서는 걸—」 지면(1988.12.02.)


THE WOMEN'S NEWS

신년축시

기쁜 천년을 향하여

김혜순

사 설

역시의 주인으로 힘을 모으자

여성신문의 신년설계

집안살림 실력을 고장 살림에 발휘

지방자치제 실시에 앞서

정치 전 망 대

민정 중선거구제 추진에 각당 의장 엇갈려

여성신문 만평

민주교육법 쟁취, 각 단체 연합체 구성

공동투쟁위원회 공심위 산하활동 역차 기대

회생과 봉사 강요하지 않는 사회를

[그림 2] 김혜순, 「신년축시: 기쁜 원년을 향하여」 지면(1989.01.06.)

[그림 1]은 강은교의 축시 「여성신문 창간에 부쳐: 보아라, 꽃들이 일어서는 걸—」[44]

이 실린 『여성신문』 1호 5면이다. 강은교의 축시는 『여성신문』 발행인 이계경의 창간사와 같은 지면에 게재돼 『여성신문』 창간의 벅찬 감동을 전하며 연대를 촉구하는 기념문학으로, 명령법이 두드러진다. 시는 흰 포말을 일으키며 오르내리는 파도의 너울을 꽃 무리의 부상으로, 전진하는 깃발 부대로, 욕망의 팔뚝질로, 고난 속에 강인하면서도 유연해진 몸으로, 민족 공동체에 대한 열망에 땀 흘리는 이마로, 새로운 여성의 언어와 주체화로 묘사하며 여성대중 봉기를 재현한다. 화자는 그 이미지로부터, "자주 민주 통일의 밀려오는 파도 / 그 푸른 소리를 들어보라. / 1988년 11월 여성신문에 집결한 / 그 힘찬 출정가를 들어보라."고 단호하게 웅변한다. 동녘의 꽃들이 일어서는 것을 "보아라", 태백시 딸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보라"와 같은 감탄형과 명령형의 결합으로,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딛고 나아가는 여성 주체성의 발견의 감동을 표출하는 선언과 그에 동참을 촉구하는 선동을 수행한다. 매일 비가 내리고 어둠이 깊어 싸움의 순환으로 고통과 죽음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파도처럼 푸른 새 세상의 손짓이 일고 있음을 알리고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응답을 요청받는 이는 "해방을 꿈꾸는" 『여성신문』의 독자들이다.

[그림 2]는 김혜순의 신년축시 「기쁜 원년을 향하여」[45]가 실린 『여성신문』 6호 3면이다. 여기에 수록된 김혜순의 시는 순종적인 피보호자가 아닌 "이슬 적신 어깨를 활짝 펴는 여자의 품", "한밤을 뭉쳐 놓은 듯 / 검은 눈동자 더욱 검게 빛나는" 여자의 몸으로 새해가 온다고 말한다. 깊은 눈동자, 땀 맺힌 이마, 멍든 팔, 꺾인 다리로 묘사되는 여성노동자의 숨 차고 힘에 부치는 신체는 어둠을 헤치고 "달려오는" 새해를 체현하는 몸이 된다. 그러한 여성은 시간의 지배자가 아닌 새로운 시간과 만나는 신체다. 그 만남은 여성운동의 현장("길 위")에서 "신명"과 "함성"으로 이뤄지고, 폭력적 통제의 장벽은 사라진다.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탄생의 기쁨으로 노동의 힘듦은 지워지고 아픔은 생명의 출산이 된다. 여자들의 수고는 해방의 몸짓이 되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수난을 섞고 나누는 여성

44 강은교, 「여성신문 창간에 부쳐: 보아라, 꽃들이 일어서는 걸—」, 『여성신문』 제1호, 1988. 12.02. 이하 직접인용은 이 시의 것.

45 김혜순, 「기쁜 원년을 향하여」, 『여성신문』 제6호, 1989.01.06. 이하 직접인용은 이 시의 것.

연대는 새로운 여성사의 주체를 탄생시킨다.

이러한 김혜순의 「기쁜 원년을 향하여」와 그 수록 지면은 기념문학의 풍부한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준다. 앞서 발간된 『여성신문』 1호에 실린 이계경의 창간사에는 『여성신문』 국민주 모금의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60이 가까운 아주머님께서 '여자로 살아오면서 너무 한맺힌 생을 알았기에 앞으로 여자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주식대금을 들고 찾아오셨"[46]다는 것이다. 주식대금을 들고 '달려온' 여성의 사례는 김혜순 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달리는 여성 이미지'와 교차된다. 시에서 그 이미지는 1980년대 후반에 활발해진 여성노동운동(가족투쟁의 확산,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등)의 역사와 중첩되며 여성대중운동의 모티프가 되었다. 또한 이 시의 배경에 실린 김진숙의 그림은 여자의 함성으로 떠오르는 거대한 새 태양과 그 아래 지각 변동이 이는 산과 나무, 수풀을 재현했다. 김진숙의 그림과 얽힌 김혜순의 시를 통해, 『여성신문』의 출범은 새로운 여성사를 여는 생명력의 내적 고양(신명)과 집단적 목소리의 분출(함성)로 재현되었다.

한편 시 우측에 실린 사설 「역사의 주인으로 힘을 모으자: 여성신문의 신년설계」는 『여성신문』 신년 편집계획을 밝혔다. 은폐·왜곡되기 쉬운 여성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사적 이익추구를 넘은 여성운동으로서 수행하며, 중앙 편중을 극복하는 다변화된 목소리로 지방 여성의 삶의 현장과 느낌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김혜순 시와 김진숙 그림에 재현된 여성의 집단적 목소리와 정동을 언론 실천의 방향으로 구체화하여 여성언론의 의제(여성문제 진상규명), 방법(여성운동), 주체(지방 여성)로 구조화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그런가 하면 『여성신문』의 여성문학 네트워크 속에서 여성 수필 또한 부상하였다. 『여성신문』 지면에서 소설가 오정희·이경자, 시인 김혜순·문정희, 교수 장필화·황루시·최현무 등은 기존에 수행하던 글쓰기 대신 '해뜨는 자리' 코너에 대중적 장르인 여성 수필을 썼다. '해뜨는 자리'는 '금요논단' 등과 달리 문학적 제호를 사용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 여성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수필 지면이었다. 일례로 김혜순은 '해뜨는 자리'에 자신과 조카, 딸의 관계를 통해 한국 제도교육

46 이계경, 「모든 여성들의 만남의 광장이 되렵니다」, 『여성신문』 제1호, 1988.12.02.

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하고,[47] 기형도 시인의 부고를 접한 소회 및 그와 여성들(어머니, 누이들, 그리고 김혜순 자신)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48] '해뜨는 자리' 코너는 37호까지 이어지다가 지면 개편으로 잠시 사라진 후, 독자들의 요청으로 53호부터 아예 "여성문인들의 경험적 체험을 담은 페미니스트 칼럼으로 재구성"[48]해 연재를 재개했다. 37~53호 사이의 공백기를 고려할 때, '해뜨는 자리'를 재개해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은 꽤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중적 문학 장르로서 수필의 부상은 주부 글쓰기 또한 독려하여, '해뜨는 자리'에 주부 양영옥·홍명진이 필자로 합류했고 38호부터는 주부 수필 '생활 속에서' 코너가 운영되기도 했다.

한편 박완서는『여성신문』11~34호에 가족법을 주제로 한 소설「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연재했는데, 이는『여성신문』의 여성문학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과 작동 역학, 그리고『여성신문』독서와 창작 과정의 결합을 잘 보여준다. 박완서는『여성신문』에 소설 연재를 약속했으나 남편과 아들이 같은 해 사망하는 아픔을 겪게 되면서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는데, 그 와중 고정희가 그를 찾아가 상투적인 위로 한마디 없이 사무적이고 집요하게 연재를 독촉했다. 박완서는 고정희의 태도에 당혹과 분노를 느꼈지만, 고정희는 맹숭맹숭하고 묵묵하게 그의 곁을 지켰다. 이튿날 새벽, 바다를 바라보며 영적 몰입에 잠긴 박완서 곁으로 고정희가 다가와 사무적인 말도, 위로도 하지 않고 함께 망연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고정희는 아파트의 위치가 참 좋다고 경탄했고, 때마침 수영만이 은빛 비늘을 번득였다. 박완서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하며, 보통의 대화에 뜻밖의 위안을 얻었다.[50] 고정희는 그러한 태도를 이후에도 지속하며 연재를 청탁했고[51] 박완서는 결국 "그에게 졌다." 그리고 이후에도 "역시 고정희가 옳았다고" 여기게 되었다.[52]

---

47 김혜순,「[해뜨는 자리]국민학교의 상벌제도」,『여성신문』제26호, 1989.06.02.

48 김혜순,「[해뜨는 자리]시인의 어머니」,『여성신문』제30호, 1989.06.30.

49 신달자,「[해뜨는 자리]어머니는 나를 차고 나는 세상을 차고...」,『여성신문』제53호, 1989.12.15. 편집자주.

50 박완서,「고정희를 생각하며」,『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조형 외 편저,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3, 239-241쪽.

51 박완서,「작가의 말」,『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교보ebook], 세계사, 2012, 1%.

무엇이 옳았던 것일까? 박완서는 『여성신문』 지면에서 그것을 "여성신문과 나와의 사랑의 역사"[53]라고 말했고, "일에 의해 구원받을 여지 되찾은 느낌"[54]이라고도 표현했다. 고정희가 "못말릴 근성"[55]으로 몰두한 '일'은 박완서가 언어화하기 힘든 고통을 뚫고 나오도록 지지하는 일상적이고 실존적인 교류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여성들이 분노와 위안, 일과 실존이 교차한 사랑의 역사를 만들며 서로를 구원하는 페미니스트 관계의 역동이 여성문학 네트워크였다.

이렇게 연재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는 여성주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기획됐다. 소설 연재를 종료하며 박완서와 고정희가 진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는 '메시지가 먼저 설정된 소설'이었고, 박완서는 메시지를 강하게 의식하는 글쓰기 과정에서 소설적 미학과 메시지가 상충하는 갈등을 수없이 느꼈다. 박완서는 그 과정에서 소설적 완성도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메시지를 살리자는 종전의 생각이 부정되곤 했는데, "그래서 자꾸 여성신문을 보게 되더"[56]라고 밝혔다. 그의 『여성신문』 독서는 『여성신문』에 실린 다른 기사의 톤('딱딱한')을 확인하며 소설적 미학과 여성주의 메시지의 교차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박완서는 그렇게 찾은 교차점을 '재미'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여성신문』에서 여성주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전략적 통속'을 의미했다. 당대 비평계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대중성을 대체로 흠결로 여기고 폄하했다.[57] 그러나 도입부부터 남녀의 성관계 이후 갈등과 "능욕당한 여

52 박완서(1993), 앞의 글, 241쪽.

53 박완서, 「[작가의 말]순진한 여자 이야기」, 『여성신문』 제9호, 1989.02.03.

54 고정희·박완서, 「[고별인터뷰]여성해방문학의 대들보 작가 박완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성신문』 제34호, 1989.07.28.

55 박완서(1993), 앞의 글, 241쪽.

56 고정희·박완서, 앞의 글.

57 김은하, 앞의 글, 9-14쪽.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 대한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과 비평계의 비판 사이의 괴리는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여, 박완서와 이경자가 이에 대한 해명을 하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골깊은 성차별 통절한 성토 박완서 장편소설 '그대 아직도…' 인기 줄달음」, 『한겨레신문』, 1990.03.17.) 한편, 비평계의 평가 또한 일률적이지는 않았다. 또문의 경우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여성해방문학의 대표적 사례로서 강조했다.

자처럼 가냘프고 참담하게 흐느껴” 우는 여자 주인공을 재현하고,[58] “‘모성의 멜로드라마’의 상투적 갈등을 차용”[59]하는 이 소설의 통속성은 신문 지면에서 페미니즘 주장을 담아내는 여성문학의 대중화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이 『여성신문』 독서와 결합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창작은 『여성신문』의 여성문학 네트워크가 수행한 ‘가정의 민주화’의 문학적 기획이었다. 이한나가 주목했듯, 이 소설은 당대 가족법 개정운동의 맥락에 놓이면서도 이를 재현하기보다 홀로 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해법을 보인다.[60] 이에 대해 박완서는 “‘가족법’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꼭 가족법이 여자에게 불리하다’하는 선입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자세도 필요하다 생각했”다며, “악착같이 물고 늘어질 때(그것이 부당한 요구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길이 있는 게 또 친권의 영역”[61]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설에도 인용된 ‘친권자의 인도청구권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관한 언급이다.[62] 이 같은 소설의 해법은 “구호(口號)나 박제(剝製)가 되지 않”[63]으려는 문학적 긴장을 담은 개별화된 대응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효과와 수용은 어떠했는가?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는 『여성신문』 독자들에게 “열렬한 사랑과 지지를 받”[64]았으며, 단행본으로 출간돼 장기 베스트셀러가 될 뿐 아니라 드라마와 연극으로 제작되고 독일에서 번역 출간되기도 하면서 반향을 일으켰다. 『여성신문』 독자들의 구체적 반응은 확인되지 않지만, 연극 「그대는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주연 윤석화는 이 소설을 읽고 연극에 출연하게 된 소회를 밝힌 바 있

58 박완서, 「[연재소설 제1회]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여성신문』 제11호, 1989.02.17.

59 김은하, 앞의 글, 29쪽.

60 이한나, 앞의 글, 38쪽.

61 고정희·박완서, 앞의 글. 또한 박완서는 “불리한 상황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우선 부족하게나마 보장돼있는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략) 물론 여성운동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복수보다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모든 여성에게 투사가 되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작가 박완서씨 가부장틀에 갇힌 여권신장의 허실」, 『동아일보』, 1989.12.04.

62 이 조항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버전에도 동일하게 인용된다.

63 박완서(1989.02.03), 앞의 글.

64 고정희·박완서, 앞의 글.

다. “여성이니까 여권문제가 관심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성격상 과격한 행동주의자는 못”되는 자신이 이 시대에 어떤 “승부사”로 존재해야 하는지 관객과 생각해 보려 한다는 것이다.[65] 또한 그는 “진정한 여성해방의 제약은 같은 여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도 많”[66]다며 소설에 등장한 여성들의 갈등관계에 주목했다. 이러한 말은 여성운동에 대한 거리감을 보여주지만, 운동의 시간성을 환기하기도 한다. 소설에서는 문경이 자신의 “어머니 자격”[66](서면진술 내용)을 방 박사와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법적 승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설에 재현된 결정적 승리의 계기가 우연히 발견된 남편의 편지라는 점에서 작가의 의도를 비껴나며 법의 무능이 폭로되기도 한다.[68] 이를 고려할 때, 윤석화의 말은 ‘지연된 승리감’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 좁은 법적 공간과 장기화되는 입법운동의 시공간을 견뎌야 하는 여성의 일상에 대한 관심 및 그 단절적 계기에 대한 의지를 ‘승부사’라는 표현이 암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신문』의 문화기획과 지면, 창작적 긴장, 텍스트 효과, 독자 수용의 미묘한 간극은 여성들의 실존적 삶과 꿈의 진폭을 보여주며 여성대중운동의 시간성을 드러낸다.

또한 『여성신문』은 36호(1989.8.18.)부터 창간 1주년 기념 ‘여성문학상’을 현상모집해 1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한 후 51~53호에 관련 기사를 싣는 등 여성해방문학의 제도화를 시도했다. 성차별과 억압의 장벽을 허물어 여성들의 진정한 의견을 대변하고자 창간된 『여성신문』이 “여성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정한 ‘여성문학상’은 참다운 여성해방문학이 드문 우리 문단에 새로운 활기를 지펴줄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였다. 여성문학상의 응모 자격은 그러한 “여성신문 취지에 찬동하는 여성”에 한했고, 응모분야는 시, 소설(장편·중편·단편), 희곡, 수필, 수기, 동화였으며, 심사위원은 각 부문에 박완서, 고정희, 백낙청, 신경

65 「윤석화 봄무대의 ‘강인한 여자’」, 『동아일보』, 1991.03.15.

66 위의 글.

67 박완서(2012), 앞의 글, 58%.

68 김은하는 이 소설에서 문경을 구원한 것은 법적 정의가 아닌 우연이라고 지적하며, 문경이 혁주의 편지를 우연히 되찾아 갈등을 해소하는 결말이 “잘잘못을 표식하지도 바로잡지도 못하는 법의 무능을 통해 정의의 여성주의적 차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다고 분석했다. 김은하, 앞의 글, 29쪽.

림, 이강백, 유종호, 조혜정과 여성학자가 배치된다고 공지됐다.[69] 여기서 응모 자격은 또문이 여성해방문학의 주체를 성별을 넘어 페미니스트로 논했던 것과 대비되는 한편,[70] 심사위원에는 또문의 여성작가들과 여성학자, 민작 남성작가들이 섞여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들의 발화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제도권 문학이 수용하게 만드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당시 편집위원이었던 박혜란은 여성신문 연구팀과의 인터뷰에서, 여성문학상이 "고정희 씨하고 하면서, 그때 나온 걸 거예요"[71]라고 추정했다. 고정희 사임 이후 『여성신문』 체제가 변동되는 상황에서 민작 측이 심사위원 명단에 오른 것은 여성문학상이 고정희 재임 시기에 기획됐을 거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유사한 시기에 고정희가 민중문학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의 비판을 제출했음을 고려할 때,[72] 민작 남성 심사위원들의 위촉은 민중문학의 여성주의적 전회 및 여성문학과 민중문학의 만남을 도모하며 여성해방문학을 문단 내에 제도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획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여성문학상에는 시 91편(45명), 소설 7편, 희곡 1편, 수필 17편(16명), 수기 5편, 동화 4편이 응모됐고, 시 2인, 수필 1인, 수기 1인이 전원 가작으로 당선됐는데, 실제 심사위원은 『여성신문』 편집위원 박혜란과 우명미, 전 편집주간 고정희, 소설가 최일옥으로 구성됐다.[73] 심사위원 변동의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신문사 운영 규모의 축소, 민중운동과의 연계 약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성문학상은 심사위원 변동, 가작 당선, 비판적 심사평을 통해 여성해방문학 제도화의 어려움을 보여주지만, 19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여성대중의 글쓰기를 독려했다.

일례로 소설가 이경자는 주부였던 공선옥의 여성문학상 수상을 회고하며,

---

69 「여성신문 창간기념 1천만원 여성문학상 현상모집」, 『여성신문』 제36호, 1989.08.18.

70 또문의 여성해방문학의 주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정혜진, 앞의 글, 115-116쪽.

71 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3.13.

72 고정희, 「김지하의 민중시는 남성중심적인가—70년대 우리 땅에 오신 하느님 어머니(2)」, 『살림』 제11호, 한국신학연구소, 1989, 78-89쪽.

73 「창간 1주년 기념 "여성문학상" 수상 작품」, 『여성신문』 제51호, 1989.12.01.

여성문학상 제도가 고정희의 신념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자신이 고정희의 배려로 여성문학상 소설 부문을 심사했음을 밝혔다. 이경자는 여성문학상이 "남성주의에 익숙한 한국 문학에서 여성주의 관점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자 "고정희가 우리에게 남긴 사랑의 징표이기도 했"[74]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 실천이 사막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 같았으나 그중에 만난 놀라운 작품이 공선옥의 소설 「장마」였다며, 공선옥이 여성문학상 시상식에 아이를 데리고 왔던 장면을 경의를 표하며 회상했다.[75] 소설가 공선옥은 1992년 제4회 여성문학상 수상자로, 그 응모와 수상은 고정희 사후에 이뤄진 일이지만 고정희가 이경자를 비롯한 심사위원진을 추천해두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동안 여성문학의 제도화는 1990년대에 이루어졌다고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1990년대의 남성 중심적 문단에서 여성문학은 1980년대 문학과 구분되는 동시에 여성주의적 의미가 탈각된 채로 옹호되었다.[76] 그러나 『여성신문』의 여성문학상과 그 네트워크는 1980년대 후반 여성주의 언론문화운동의 경로로 수행된 여성문학의 제도화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문학의 민주화를 여성대중운동으로서 이뤄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 4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과 문화기획

앞서 검토한 여성문학의 대중적 실천들이 함의한 여성연대와 민주주의의 지평은 『여성신문』의 다층적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기획과 연계된 것이기도 했다. 『여성신문』은 '여성의 인간화'와 '여성해방'을 주장하면서[77] "가정과 사회의 민

74 이경자, 「뙤약볕 아래의 풀 같은 생명의 기운」, 『아산의 향기』, 편집부 외 공저, 아산사회복지재단, 2020년 여름호, 56쪽.

75 위의 글, 같은 쪽.

76 조연정, 「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에서 페미니즘하기—김정란과 허수경을 읽으며」, 『구보학보』 제27호, 구보학회, 2021, 272-282쪽.

77 『여성신문』에서 주장된 '여성의 인간화'는 여성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필자별로 다양하나(여권이 아닌 인권, 여성 인권, 성별분업 타파, 변혁적 여성 주체성 등), 상당수가 '여성해방' 이념(idea)과 병존한다. '여성해방'은 여성지도자협의모임의 「여성인간선언」(1975)에서 천명된 이후 1980년대의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공유했던 이념이었다. 이는 여

주화”[78]를 표방하는 한편, 여성단체와 독자대중의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고 여성운동과 민중운동의 소식을 교차시키며 연대를 확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여성신문』은 1989년 1월에 민중운동 연대조직으로 출범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 가입한 여연의 목소리와 전민련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한편, 그 산하기관이 되지 않으면서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단체들의 연대 기반이 되기도 했다. 여연이 전민련에 가입하자 여연을 탈퇴한 또문[79]의 구성원들이 『여성신문』에 참여한 사실은 후자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은 『여성신문』이 여성운동 대중화의 두 방향을 아우르며 상호참조의 토대를 형성했음을 보여주고, 여성해방과 민주주의의 결합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이 독자대중에 의해 생산된 경우도 많았던 만큼, 여성단체들의 입장에만 수렴되지 않는 다채로운 소리가 공명했다. 이 담론은 양적 측면과 다양성의 차원에서 특히 고정희 재임 시기에 급부상했다. 이는 해당 담론에 다각도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고정희 편집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 동시에, 1987년 직후 폭발적이었던 민주주의 상상이 점차 반복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혜란과 고정희가 신문 창간 전후 민중과 여성에 관해 늘 싸웠다는 기록,[80] 『여성신문』이 민주화운동 계열과 결이 같았다는 김효선과 박효신의 회고,[81] ‘여성신문’보다 ‘인권신문’이기를 요구하는 견해를 비판하면서도 여성운동

---

성의 지위 향상을 넘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사회 체제의 변혁에 대한 지향을 담은 한편, 억압 체제의 결합 방식이나 변혁 주체에 대한 인식, 민중운동과의 관계 설정에는 여러 차이가 존재했다.

78 「“여성신문과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여성신문』 제37호, 1989.08.25.

79 지은희에 따르면 당시 여연을 탈퇴한 단체로는 한교여연과 또문 등이 있다. 지은희, 「내부로부터 본 여성운동—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제22호, 한국사회이론학회, 2002, 108쪽.

80 박혜란은 『여성신문』 창간 전후 고정희와 거의 매일 만나 술을 마시고 싸웠으며 “주제는 늘 ‘민중이냐, 여성이냐’에 관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박혜란에 의하면 싸움은 언제나 서로를 ‘천상 시인’과 ‘중산층 여성’으로 간주하며 끝났다고 한다. 박혜란, 「토악질하듯 어루만지듯 가슴으로 읽은 고정희」, 『또 하나의 문화 제9호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2, 57쪽.

81 김효선·박효신·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4.10.

과 민중운동의 연대를 강조한 고정희의 언설[82]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중운동과의 연대가 『여성신문』 내부에서 동일하게 이해되거나 온전히 합치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 가운데, 민주주의 제도화 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을 비판하며 여성해방운동의 시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여성신문』에서 분출했다. 이렇게 『여성신문』 창간 초기에 부상한 '여성해방 민주주의'는 고정희가 또문과 여연 등에서 활동하고 연대하며 천착해온 문제이자 『여성신문』 이후 그 문제의식을 문학적으로 심화한 주제이기도 했다.

『여성신문』은 대체로 "선민주화 후여성인권"[83] 같은 성차별적 민주주의론을 비판하며 여성해방운동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하는 기사들을 보도했다. 이는 특히 (1)가족법 개정운동·가족 정책과 연동되면서 평등한 가족관계를 지향하고 성별분업을 타파하는 '가정의 민주화' 담론으로 두드러졌다. 이 담론은 ①가정의 민주화가 사회의 민주화보다 부차화되는 경향을 비판하고, ②가정을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의미화하며, ③주부를 민주주의 주체로 호명했다. 2호에 실린 '여성학 교실'에서 여성신문 학술부는 사회의 민주화가 "자율적·주체적인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관계"[84]가 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5호의 '우리는 동지'란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소속 고부관계가 보여준 가정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의 일치 사례를 조명했다.[85] 6호에서 서울 불광동에 사는 독자 박영화는 "민주와 통일 외쳐 대면서 분단과 독재의 기반인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붙잡고 늘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86]고 비판했다. 1호의 대담에서 성심여대 사회학과 교수 이영자는 가부장성이 강한 나라일수록 민주화 과정이 늦다며, 가정을 민주적 인간을 만드는 "학습의 장"으로 여겨야 하

82 고정희·지영선, 앞의 글.

83 「[특집]여성 정치역량과 13대 국회 이번 국회도 여성관계 법안 통과 불투명하다」, 『여성신문』 제0호, 1988.10.28.

84 여성신문 학술부, 「여성학 교실」, 『여성신문』 제2호, 1988.12.09.

85 박혜숙, 「[우리는 동지]내 아들, 내 남편 석방이 끝은 아니다: 개인의 행복, 가족의 즐거움 접어두고 고부간 동지로 뭉쳐」, 『여성신문』 제5호, 1988.12.30.

86 「[기획진단]보통사람들의 새해 소망 열 한가지: 시민·학생·주부·농민·노동자 89명에게 듣는다」, 『여성신문』 제6호, 1989.01.06.

고, 사회와 가정의 민주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민주화도 진행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87] 42호에서 '동남아 민중대회 여성분과' 토의 내용을 담은 기사는 여성해방운동이 발전 모델에 대항해야 하며, 그것이 "가정이 평화, 평등, 민주주의를 전승시키는 가장 큰 학교가 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전했다.[88] 주부문화를 취재한 10호의 기사는 주부의 변화가 "가족과 사회의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89]라며 주부를 민주주의 주체로 호명했다.

또한 가정의 민주화 담론은 ④평등하고 인격적인 가족관계를 민주화로 설명하며, ⑤가부장적 가족 정책을 비판하고, ⑥가정의 민주화를 국가와 민족 단위의 공동체성 회복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11호에서 서울에 사는 독자 이경현은 민주화를 부르짖던 남자가 집에서 가사와 뒤치닥 거리를 아내에게 맡기고 군림하거나, 집 밖에서 당당한 인간으로 살다가 집에서는 인습적 대소사로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없는 경우가 많다면 민주주의는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화된 설날 풍습'을 요청한 이 글의 문제의식은 부제를 통해 '가사노동'의 문제로 환기되기도 했다.[90] 14호에 실린 대담에서 방송작가 나연숙과 화가 김점선은 가정의 민주화에 무심한 매스컴의 여성 재현을 비판하고 부부의 민주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다.[91] 40호의 기사는 부모와 자녀의 민주적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92] 29호에 실린 사설은 남녀의 민주화, 가정의 민주화, 국가의 민주화가 민족통일·민족공동체 회복의 길이며 그것은 "'여성의 억압'을 어떻게 해방시키느냐에"[93] 달려

87 이영자·이화수, 「[쟁점]여성과 남성은 동반자인가 갈등관계인가」, 『여성신문』 제1호, 1988.12.02.

88 「[해외 여성]여성이 중심이 되는 '발전' 모색: 동남아 민중대회, 여성분과 토의」, 『여성신문』 제42호, 1989.09.29.

89 김효선, 「[기획진단]주부문화 변화하고 있다④ 주부가 자신감 가질 때 가족관계도 잘 풀린다」, 『여성신문』 제10호, 1989.02.10.

90 이경현, 「조금은 민주화된 설날이 되기를: 과중한 가사노동, 명절때는 더욱 커」, 『여성신문』 제11호, 1989.02.17.

91 나연숙·김점선, 「[쟁점]"부부싸움은 권력싸움인가": '남자있는 가정 여자있는 사회' 되어야」, 『여성신문』 제19호, 1989.04.14.

92 「[가정은 변화하는가—부모 자녀 관계]아이 의견 무시않는 민주적관계」, 『여성신문』 제40호, 1989.09.15.

93 「[사설]아직도 매맞는 여성들이 많은 사회는 자라는 아이들의 절망을 의미한다」, 『여성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호에서 부산에 사는 독자 김두리도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벗고 “여성의 힘을 결집하여 가정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 통일로”[94] 나아자고 제언했다. 가족법 개정이 민주주의의 선결과제·희망·권리·원칙임을 주장하는 기사들도 실렸다.[95]

이외에도 (2)남녀고용평등법과 더불어 직장 내 성차별을 지적하는 ‘직장 내 민주화’ 담론이 등장했다. 23호의 여성의 전화 단체 소식을 전하는 지면에서는 여성의 전화가 “최근 사회의 민주화에 힘입어 직장내 민주화를 위한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직장 내 성차별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96] 38호의 ‘여성학 강좌’ 코너는 여성의 저임금 노동과 말단직 지위라는 성불평등이 비민주적 사회의 기반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사·직종·업무분리의 성별분업을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97]

(3)인신매매와 남성의 성적 우월주의 폐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확보, 성폭력 피해의 사회문제화를 주장하는 ‘성적 민주주의’ 담론이 제시됐다. 9호에서 대구에 사는 안영자는 “어느 한 곳에서는 여성해방을 부르짖으며 온갖 탄압과 압박 속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을 때 다른 한 곳에서는” 여성들이 인신매매 현장에 던져지는 모순된 상황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상황 속에서 피상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이뤄지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일갈했다.[98] 32호에 실린 제5회 한국여성학회 학술대회 보도 기사는 ‘성적 민주주의’를 남성의 성적 우월주의 폐지와 여성

---

문』 제29호, 1989.06.23.

94 김두리, 「[청모퉁이 홍모퉁이]현모양처 벗어나기: 여성의 희생에 꿀을 입힌 당의정」, 『여성신문』 제29호, 1989.06.23.

95 「가족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 끝: 가족법개정은 민주화의 선결과제」, 『여성신문』 제34호, 1989.07.28.; 「[쟁점]어린이에서 할머니까지 모두가 ‘하나’: 이천만 여성 함성 모아 평화대행진」, 『여성신문』 제48호, 1989.11.10.; 「가족법개정은 민주시민의 권리」, 『여성신문』 제45호, 1989.10.20.; 김계정, 「[독자의 소리]남녀모두의 평화위해 반드시」, 『여성신문』 제50호, 1989.11.24.

96 「조직상담 역점두기로: 여성의 전화, 5월부터」, 『여성신문』 제23호, 1989.05.12.

97 「여성학 강좌① 성별분업은 남녀 불평등의 핵심」, 『여성신문』 제38호, 1989.09.01.

98 안영자, 「‘인신매매’ 철저히 뿌리뽑아야」, 『여성신문』 제9호, 1989.02.03.

의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으로 정의한 성심여대 이영자 교수의 발표를 수록했다. 여기서는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조절하고 새로운 성문화를 창조하며 여성의 피해를 사회문제로서 다룰 것이 주장되는 동시에, '성 일탈'을 비판하는 규범적 시각이 드러나기도 했다.[99] 이 기사는 당대 섹슈얼리티 연구 동향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의 일환으로, 또문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었다.[100]

(4)여성의 의회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여성참여 민주주의' 담론도 등장했다. 8호 특집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민주적 제도로 현실화할 방안을 논했다.[101] 18호에 실린 사설은 참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여성 할당제 도입 쟁점을 전했다.[102] 23호에서 『여성신문』 광주지사장 강정님 또한 광주의 정책토론회 소식을 알리며 여성의 정치참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토론 내용을 보도했다.[103] 34호의 '한국 여성정치 문화연구소' 학술대회 기사는 "여성대표성의 침체는 현대 민주주의가 극복해야 할 핵심적 과제"[104]라는 미국 오클라호마대 교수 로버트 다의 주장을 실었다.

(5)전민련을 비롯한 민중운동에 여성주의 시각·전략·조직구조를 요청하는 '변혁운동 내부 민주주의' 담론도 부상했다. 이는 1980년대부터 운동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5호에 실린 편집주간 고정희와 여연 이우정의 인터뷰는 '해방운동에서 남녀 차이를 두는 것은 지배문화의 답습'이라는 이우정의 지적을 상기하며 민주화운동의 가부장성을 비

99 이영자, 「'성' 연구3 제5회 여성학회 춘계 학술대회 지상 심포지엄: 새로운 '성문화 창조'는 인간평등 실현과 직결」, 『여성신문』 제32호, 1989.07.14.

100 제5회 한국여성학회 학술대회와 『여성신문』의 집중 보도, 또문 월례논단의 섹슈얼리티 지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정혜진, 앞의 글, 244-246쪽.

101 「[특집]여성 정치 진출무대 지방자치제: 남녀평등 정치 발판 마련되어야」, 『여성신문』 제8호, 1989.01.27.

102 「지방의회 여성참여 '할당제'를 달라」, 『여성신문』 제18호, 1989.04.07.; 「할당제로 여성의원 진출 보장해야: 〈지방의회 여성참여방안〉 토론회서 주장」, 『여성신문』 제18호, 1989.04.07.

103 강정님, 「[지방소식]할당제·중선거구로 여성참여 확대」, 『여성신문』 제23호, 1989.05.12.

104 「여성정치참여 부진, 정치의욕 부진에서 비롯」, 『여성신문』 제34호, 1989.07.28.

판했다.[105] 10호의 사설은 전민련이 여성문제 타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운동 방법의 군사적·폭력적 성격을 극복하며 평화 원칙을 고수할 것을 여성의 이름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방관하면 민주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106] 이어서 11호에 실린 대담에서 성균관대 교수 정현백은 "사회변혁 과정에서 내부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하며, 여성운동이 부문운동으로 매몰되는 것을 우려했다. 특히 전민련이 "운동권내 가부장문화"와 형식적 여성대표 안배를 극복하고 여성주의 시각·학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민련 공동의장 이부영은 여연에 소속된 여성단체가 적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변혁 과정에서 내부 민주주의가 확립돼야 변혁 이후 여성해방에 대한 반동화로 치닫지 않게 된다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107]

(6)다수의 원칙을 넘은 '소수적 민주주의' 담론,[108] (7)의회 진출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하며 여성의 삶의 현장 변화를 강조하는 '일상생활의 민주화' 담론,[109] (8)민주화 과정에 여성운동과 여성노동운동의 역할이 핵심적이었음을 강조하는 '여성의 민주주의' 담론,[110] (9)한국의 군사문화를 비판하는 '탈군사화 민

105 고정희·이우정, 「[만나고 싶은 사람]억압받는 사람들의 대모 이우정 회장: "투사보다 중요한 건 사랑의 실천"」, 『여성신문』 제5호, 1988.12.30.

106 「[사설]전민련에 당부한다」, 『여성신문』 제10호, 1989.02.10.

107 이부영·정현백, 「[쟁점]여성해방 없이 민중해방 없다: 전민련, 여성위원회 구성시급」, 『여성신문』 제11호, 1989.02.17.

108 박영숙, 「[특집]여성 정치역량과 13대 국회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빠진 현행 고용평등법」, 『여성신문』 제0호, 1988.10.28.

109 이승희, 「여성억압의 정치와 여성해방의 정치」, 『여성신문』 제2호, 1988.12.09.

110 『여성신문』은 '1988년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한 멕스테크 노동조합 여성노동자들이 "반사회적인 악덕 기업주를 응징하고 반여성적인 정부당국을 규탄하면서 온몸으로 민주화를 지킨 민주투사"이며, "여성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2천만 여성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여성신문이 뽑은 올해의 여성계 10대 뉴스」, 『여성신문』 제5호, 1988.12.30.; 최영희·이승희, 「[6·29를 점검한다]여성과 노동자 운동이 민주화 앞당겼다: 최루탄 추방결의대회 등 조직역량 열배이상 발휘」, 『여성신문』 제28호, 1989.06.16.; 조아라, 「[이야기여성사/말로 듣는 한국여성의 삶과 역사]Y 떠났어도 민권과 여성인권위해 일하니 섭섭지 않아」, 『여성신문』 제28호, 1989.06.16.) 또한 『여성신문』 55호의 1면 헤드라인은 '80년대 민주화·통일, 여성이 앞당겼다'이기도 했다.

주주의' 담론[111]도 출현했다. 그런가 하면 (10)민주주의를 통해 여성해방이 도래한다는 시각에서 민족민주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여성운동, 여성의 민주화·통일운동 참여를 강조하는 '여성해방의 방법으로서 민주주의' 담론[112]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여성문제의 근원이 계급모순이라는 인식을 포괄하며 당시 여연의 민주주의론과 상통했다. 한편 여연의 기조 또한 민족민주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여성운동과 독자적 여성운동을 병행하는 것이었기에[113] 가정의 민주화나 변혁운동 내부 민주주의 담론 등과도 직결됐다.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은 한 주장이 특정 단체와 일대일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주체들과 교차하며 공명했던 것이다.

이 같은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은 민주주의를 단지 직선제로 간주하는 경향이나[114] 몰여성주의적 사회운동을 비판하면서,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현장성을 아우르며 민주주의를 여성문제·여성문화와 광범위하게 연계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여성주의적 이행에 대한 상상이 단일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이 담론은 '여성문화운동' 기획과도 연결됐다. 여성문화운동은 『여성신문』 창립 취지문에도 표방된 중요한 기조 중 하나였다. 창립 취지문에서 『여성신문』은 가부장권 문화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을 여성해방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주체로서의 여성관을 재정립하고, 민주적 가정문화 창달을 위한 여론 형성에 주

111 남성연구모임, 「'안되는 일도 되게 하는' 군대조직의 힘: 군사문화는 미성숙한 사회의 척도」, 『여성신문』 제47호, 1989.11.03.

112 지은희, 「[특집]한국 여성해방운동의 깊이와 넓이: 여성해방운동은 계급모순에서 출발」, 『여성신문』 제6호, 1989.01.06; 이승희, 앞의 글; 한명숙, 「[논단]여성이여! 통일의 주체로 서자!」, 『여성신문』 제10호, 1989.02.10; 한명숙·장기표, 「[쟁점]여성을 울리는 악법 개폐되어야 한다」, 『여성신문』 제16호, 1989.03.24.; 「〈가족법개정특별위〉 회장 한명숙씨 가족법개정은 민주시민의 권리」, 『여성신문』 제45호, 1989.10.20.

113 지은희, 앞의 글, 2002, 108쪽.

114 "우리는 더러 재작년의 대통령 직접선거 하나만으로 민주주의가 모두 이루어진 양 심취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중략) 그간 우리나라에서 대표라고 뽑히는 자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남자이거나 한 두 명의 고분고분한 여자가 끼어 있기 마련이었다." (「[사설]지방자치제에 바란다」, 『여성신문』 제9호, 1989.02.03.) "그런 만큼 6·29에 의한 직선제가 곧 민주주의라고 받아들이듯 동요했기 때문이죠." 최영희·이승희, 앞의 글.

력할 뿐 아니라, 여성문화운동의 방향과 이론을 기준으로 삼아 언론 기능을 하겠다고 밝혔다.[115] 『여성신문』은 가부장적 문화를 극복하며 여성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여성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출범하면서, '민주주의'를 곧 '여성문화의 실현'으로 의미화한 것이다. 이는 기존 언론의 여성 관련 기사가 문화면에 한정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여성신문』이[115] '문화'의 위상을 변화시키며 여성주의 저널리즘을 구축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여성신문』에는 문화 지면의 비중이 높았다. 문화 콘텐츠 정보('문화정보게시판' 코너)와 문화운동계 소식('문화마당', '금주의 출판문화', '문화주평')이 공존했고, 특히 다양한 여성문화운동 사례와 주부문화가 소개되고 담론화되었다. 편지, 소설, 시, 수필이 수록되고('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연재소설', '해뜨는 자리', '축시' 등), 민주적 관계('우리는 동지'), 토론문화('청모퉁이 홍모퉁이'[117]), 여성구술문화('이야기여성사')를 구현하는 지면이 비중있게 배치됐다.

이러한 담론과 문화기획은 고정희의 시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고정희의 시집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1989)와 연작시 「이야기 여성사」(1990)는 '『여성신문』 이후' 고정희에게서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이 심화된 맥락을 보여준다. 특히 고정희는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를 발간하며 자신이 "『여성신문』의 창간작업에서부터 1년에 이르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새벽으로 새벽으로 이 시편들을 쓰기 시작했다"[118]고 밝히면서, 시집에 『여성신문』 동지들의 애정이 스며들어 있음을 각별히 언급했다. 앞서 고정희는 「자유와 해방에 대한 구속영장—이

115 「민족공동체 회복을 촉구한다: 여성신문사 창립발기 취지문」, 『여성신문』 제0호, 1988.10.28.

116 "이제 그동안 일간지 문화면 한구석에 조그맣게 다루어지던 여성문제 기사를 보며 답답해하던 갈증을 풀게 될 것입니다." 이계경, 「모든 여성들의 만남의 광장이 되렵니다」, 『여성신문』 제1호, 1988.12.02.

117 이 코너는 민주적 토론문화를 독려하는 또문의 프로그램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신문』에는 다음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또 하나의 문화〉는 이런 지혜를 민주적인 토론연습을 통해 스스로 찾아보는 대학 신입생 토론 캠프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다." 「'토론 공동체' 키워나간다: 〈또 하나의 문화〉 대학신입생 캠프」, 『여성신문』 제9호, 1989.02.03.

118 고정희, 「후기」,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창작과비평사, 1989, 156쪽.

천만 여성의 저항의 횃불 권인숙에게」(1987)라는 시에서 6월 항쟁을 여성의 투쟁에서 발원한 사건으로 의미화하고 여성해방과 민주주의의 분리 불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여성해방 민주주의'를 주장한 바 있으나, 그 면모가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그런가 하면 『여성신문』 이후 발간한 고정희의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는 여성해방운동의 역사 가운데 도래한 민주주의 사회('민주집')를 남녀평등으로부터 시작돼 세계평화에까지 열리는 '평등의 집'으로 묘사하고 그 골자를 성별분업의 극복으로 재현했다. 이로써 여성해방 민주주의의 상을 '가정의 민주화'의 공동체적 차원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여성신문』의 '이야기여성사' 코너와 연동된 고정희의 「이야기 여성사」 연작시는 가부장적 결혼·가족 제도와 규범적 섹슈얼리티를 넘는 성 혁명을 민주주의의 과제로 다루는 '성적 민주주의'의 지평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여성신문』의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기획은 고정희의 여성해방문학을 심화시켰다.

## 5 나가며: 민주주의의 여성문화운동적 이행

『여성신문』의 초대 발행인 이계경은 『여성신문』 편집진이 "진보적, 급진적 견해를 가진 이들이 다수라 중산층 주부들의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취향과는 동떨어져 있었"고, 『여성신문』이 엘리트 중심적인 신문으로 오해받기도 했다고 밝혔다.[119] 당시 『여성신문』이 급진적인 시각을 가졌으나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로부터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번갈아 받았고, 대중적으로 더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고 회고했다.[120] 이와 관련하여 여성신문사 교육문화원 원장을 역임한 임인옥은 편집주간 고정희가 뽑는 신문의 헤드라인이 신문사의 초유의 관심사였다며, 그의 헤드라인에 신문사가 들썩이고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발언한 바 있다.[121] 또한 이계경은 어렵게 수주한 광고를 편집진이 "여성을 비하

119 이계경, 앞의 책, 81쪽.

120 위의 책, 80-82쪽.

121 이는 〈여성신문 창간 37주년 기념 포럼: 여성신문, 여성해방언론의 다리를 놓다〉(2025.11.11.)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다. 고정희 주간 재임 시기 『여성신문』의 1면 헤드라인은 문화 비판과 운동적·정치적 의제가 과격하고 선명한 목소리로 드러났고, 그의 퇴사

하거나 성을 상품화"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곤 했으며, 그럼에도 신문사가 광고 비중을 지면의 30% 미만으로 유지하고 여성 비하·성 상품화 광고를 싣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고 강조하기도 했다.[122] 그러나 결국 『여성신문』은 국민주로 모금한 자본금이 창간 3개월만에 바닥이 나 경영이 어려워졌고, 신문사에서는 영업부와 편집위원들 사이에 "격앙된 고성이 오"가며 갈등이 격화되었다.[123]

여성신문 연구팀의 인터뷰에서, 편집주간 고정희가 10개월만에 『여성신문』을 퇴사하게 된 맥락은 인터뷰이마다 다르게 회고되었다. 박혜란은 고정희 퇴사의 주요한 이유가 경영진과의 누적된 대립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고정희는 경영진을 '민중을 모르는 부르주아'로 인식했고, 편집주간과 발행인은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는 관계였다. 또한 고정희의 사임 이후 신문사는 발행인이 편집에 관여하는 체제로 변화했으며, 김효선 대표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신문의 존속에 운영의 초점이 맞춰졌다.[124] 박혜숙은 당시 한국 사회에 해직 기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성신문사에서도 편집국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한편, 발행인이 광고국으로부터 톤 조절 등의 편집 개입 요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고정희의 사임 맥락을 추정했다.[125] 박혜란과 박혜숙은 고정희와 기자들 간의 갈등 또한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126] 그런가 하면 김효선과 박효신은 고정희의 퇴사가 신문사 내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특히 박효신은 고정희와 평소에도 1주년이 되면 그만두자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으며, 두 사람이 계획한

---

후 『여성신문』의 헤드라인은 편집 방향의 부침을 다소간 보여주며 생활 정보와 사회 비리, 여성 현실, 운동 의제의 다변화된 목소리를 실은 것이 확인된다. 또한 박효신은 편집위원회에서 자주 지적되었던 것이 기사 제목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김효선·박효신·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4.10.

122 이계경, 앞의 책, 83-84쪽.

123 위의 책, 85쪽.

124 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3.13.

125 박혜숙과의 인터뷰, 2026.03.25.

126 이 갈등의 객관적 사실에 관한 설명에서 두 사람의 증언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사의 업무 과중과 관련해 고정희와 기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는 점은 공통으로 확인된다. 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3.13.; 박혜숙과의 인터뷰, 2026.03.25.

대로 창간 준비 시점부터 1년이 되던 시기에 함께 사임했고, 내부 갈등은 퇴사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127] 이러한 언급들은 고정희의 직접적인 사임 이유를 일관되게 확인해주지는 않지만, 그의 사임에 대한 여러 해석을 낳았던 신문사 내부 갈등의 정황 및 사임 이후의 체제 변화를 증언해준다.

이 같은 내부 갈등 및 체제 변동과 관련해, 초기 『여성신문』의 형식적 특성을 주목하며 여성문학의 위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간 『여성신문』은 일간지와 달리 심도 깊은 기획 기사·취재 기사·인터뷰 기사가 상당수인 한편, 월간지·계간지·무크지보다 시의적인 논평을 부각하고, 회보보다 폭넓게 여성운동의 의제들을 종합하는 데 주력했다. 여성신문 연구팀과의 인터뷰에서 김효선과 박효신은 주간지 발행의 고충과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박효신은 언론인으로서 자신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발간을 경험했으며 그중 주간지가 제일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에 의하면 주간지는 육하원칙 위주로 단편적 보도를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 중심의 일간지와 달리, 기승전결을 갖춘 긴 호흡의 기획 기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하므로 취재 범위가 광범위하고 발품이 훨씬 많이 든다. 그와 동시에 월간지보다 빠듯한 루틴으로 깊이 있고 폭넓은 기사를 완성해야 하기에, 육체적, 정신적 소모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박효신은 『여성신문』이 제작 여건상 일간지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었고 월간지는 독자와 소통하는 텀이 너무 길다고 판단했기에 주간지로 창간됐으나, 실제 운영은 예상보다 훨씬 고된 과정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김효선은 주간지가 취재원 규모와 취재처에서의 위상 면에서 일간지와 현격한 차이가 나고 속보경쟁도 불가능하지만, 여성주의적 뉴스 밸류를 지향하며 여성주의 관점·깊이·분석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주간지의 고충을 “시장성과 월간지 그걸 같이 갖고 있어야” 하는 점으로 요약하며, 일간지의 특성과 월간지의 성격을 아울러야 하는 주간지의 이중적 과제를 언급했다. 또한 박효신과 김효선 모두 그러한 주간지의 특성이 『여성신문』 초기 판형(대판이 아닌 타블로이드 변형판(320X595mm))과도 관계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판형이 미학적인 이유로 선택되었다고 하였다.[128]

127 김효선·박효신·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4.10.
128 위의 인터뷰.

이처럼 『여성신문』은 일간지의 시의성과 시장성, 잡지의 심층성과 미학성, 회보의 현장성과 기록성을 통합하고 보완하면서 대중성을 심화·확장하는 방향을 추구했으며, 이를 위해 상업적 대중지로서의 경제적 토대(광고와 생활정보)와 운동적 정론지로서의 가치 지향(헤드라인과 운동계 소식, 기획 기사) 사이의 긴장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한 매체 전략의 긴장을 담아내며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성격을 구체화한 것이 『여성신문』의 여성문학 지면과 네트워크였다. 여성대중운동을 표방하며 탄생한 주간지 『여성신문』은 상업적이면서도 운동적이어야 하는 민주화 이행기의 모순된 과제를 담아내는 형식이었다. 그 모순 속에서 여성문학의 연대, 대중화, 제도화가 진전되었고,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과 문화기획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 실천들은 '저널리즘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수행되었다.

체제 변혁으로서의 여성해방운동을 대중화하는 일은 민주화 이행기의 모순된 지형에서 벌어진 경합의 과정 자체였고, 여성문학은 그 속에서 단절되고 연속되며 여성해방의 전망을 『여성신문』에 새겨놓았다. 고정희 사임 이후 발행된 『여성신문』 창간 1주년 기념호(51호)와 송년호(55호)에 실린 기념문학들은 여성대중운동의 경합을 뚫고 나온 목소리들을 들려준다. 1989년 12월 1일자 『여성신문』 51호에는 창간 1주년을 기념하며 고정희의 축시 「자매여 우리가 길이고 빛이다—여성신문 창간 일주년에 부쳐」[129]가 수록됐다. 이 시는 고정희가 주간으로 활동하던 당시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강조한 '자매애'를 다시금 요청하며 여성대중을 묶어내면서 『여성신문』의 창간을 기억한다. 『여성신문』을 이분법적 독점 체제를 붕괴시키는 운동으로 재선언하며 여성대중을 변혁의 기운, 집합적 주체로 불러모은다.[130] 그런가 하면 『여성신문』 55호는 1980년대를 결산하며 김승희의 송년시 「80년대여, 안녕」[131]과 이경자의 송년 에세이 「여성이 일어섰다—낱낱의 하나에서 어깨동무 우리로」[132]를 실었다. 「80년대여, 안녕」은 80년

129 고정희, 「[축시]자매여 우리가 길이고 빛이다—여성신문 창간 일주년에 부쳐」, 『여성신문』 제51호, 1989.12.01.

130 정혜진, 앞의 글, 171-172쪽.

131 김승희, 「[송년시]80년대여, 안녕」, 『여성신문』 제55호, 1989.12.29.

132 이경자, 「[89년 송년 에세이]여성이 일어섰다—낱낱의 하나에서 어깨동무 우리로」, 『여성

대의 정치적·문화적 억압과 혼란을 TV '화면 조정 시간'에 비유하며, TV를 발로 차서 폭발시키든 스위치를 조용히 끄든 기존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치마폭으로 밀려오는 태양들의 비유를 통해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보여주며, 앞선 신문 1호와 6호에서 재현됐던 『여성신문』 주주·독자들의 신체를 상기시킨다. 이경자의 송년 에세이는 1989년 한 해의 여성운동을 의미화했다. 반성폭력 투쟁은 '강간이 여성의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도 성폭력 피해를 수치와 고통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섰고, 여성노동운동과 주부 자살 문제 이후 여성들이 일·노동의 주체로 각성했으며, 가족법 개정운동은 여성이 개별화됐던 시대를 끝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1989년은 여성들이 삶의 질적 변화을 이루고 희망을 본 시기로 의미화되었다. 이 같은 여성주의 기념문학들은 『여성신문』의 역사를 변혁적이고 집합적인 실천으로 재현하며 여성대중의 연대와 희망의 정동을 고양했다. 이 또한 『여성신문』의 이중적인 대중매체성을 체현하며 그 경합과 변화 속에 여성해방의 변혁적 정치를 각인한 것이었다.

본고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행기의 역사적 조건에서 상업적 대중지와 운동적 정론지의 이중적 지형을 가로지르며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추구한 초기 『여성신문』의 여성주의 언론문화운동을 조명했다. 특히 그러한 『여성신문』의 문화운동적 위상을 잘 보여주는 여성문학 네트워크와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기획을 초대 편집주간 고정희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민주주의의 여성문화운동적 이행의 양상을 논했다. 『여성신문』은 민주화 이행기의 제도적 변화와 여성운동의 역량 속에서 탄생해 여성주의 문화예술과 결합하며 여성연대·문화연대의 거점으로 기능했다. 『여성신문』에서는 초대 발행인 이계경과 편집주간 고정희, 편집위원들의 문화운동 역량을 토대로, 크리스챤 아카데미와 또문을 중심으로 한 여성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특히 고정희는 또문과 민작에서의 활동 반경을 『여성신문』이라는 광범위한 대중운동의 장에서 확장하여 폭넓은 여성문학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그의 사임 이후 『여성신문』의 조직 규모가 축소되며 인적 구성이 변모하는 가운데서도 여성문학 네트워킹은 지속됐다. 여성문학 네트워크의 작동 속에서 여성주의 기념문학과 여성 수필이 부상하며, 『여성신문』 독

신문』 제55호, 1989.12.29.

서와 창작 과정이 결합되고, 여성해방문학의 제도화가 시도됐다. 이렇게 활성화된 여성문학의 대중적 실천은『여성신문』에서 다층적으로 전개된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기획과도 연계된 것이었다.

『여성신문』은 당시 전민련 가입 여부와 관련된 여성운동 대중화의 두 방향을 아우르는 토대가 되어, 독자들과 더불어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장을 형성했고, 여성해방과 민주주의의 결합 방식의 차이를 포함한 민주주의론의 다채로운 공명을 보여주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조직·운동문화의 가부장성을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여성문제·여성문화와 광범위하게 연계하면서 민주주의의 여성주의적 전환을 외친 것이『여성신문』의 여성해방 민주주의 담론이었다. 이는『여성신문』의 여성문화운동 기조 및 기획과 연결되어, 민주주의가 여성문화의 실현으로 의미화되고 고정희 시의 민주주의 지평이 심화됐다. 또한 주간지는 상업성과 운동성이라는 민주화 이행기의 모순적 과제를 담아내는 형식이었고, 그 속에서 여성문학은 이중적인 대중매체성을 체현하며 여성해방의 변혁적 전망을『여성신문』에 새겼다.

1987년 이후 여성운동은 몰여성주의적 민주주의를 비판하며 민주주의를 여성해방에 입각해 급진화하는 시도를 이어왔다. 오늘날까지 여성과 소수자들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담론에서 성평등 의제가 누락됐음을 비판하고 성평등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재구성해 '정상성' 규범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질적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133]『여성신문』의 여성주의 저널리즘을 조명하는 일은 오늘날 광장 안팎에서 민주주의를 탈구축하는 여성과 소수자들의 '성평등 민주주의' 운동사를 되짚는 일이기도 하다. 초기『여성신문』은 소수자 정치를 본격화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의미의 성평등 민주주의 지평까지 열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여성주의적 이행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체제 변혁의 문제의식을 확산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재급진화하는 해방의 전망이 이행기의 모순된 지형

133 최근 논의로는 황정미,「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경제와 사회』제114호, 비판사회학회, 2017; 문지영,「'성평등'은 민주주의 문제인가?: 한국 민주주의 담론의 그늘」,『사회과학연구』제28권 제2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정성조,「퀴어 민주주의를 위하여」,『문화과학』제121호, 문화과학사, 2025 등.

과 노선 차이를 가로지르며 여성대중과의 확장된 연대를 만드는 문화운동의 역동 속에서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수행한 『여성신문』의 여성주의 언론 문화운동은 '성평등 민주주의' 운동의 전사(前史)로서 기억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기본자료

『여성신문』 0~55호.

김효선·박효신·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4.10.

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03.13.

박혜숙과의 인터뷰, 2026.03.25.

단행본

고정희,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창작과비평사, 1989, 156쪽.

_____,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창작과비평사, 1992, 23-25쪽.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교보ebook], 세계사, 2012, 1%, 58%.

박태순 외 공저, 『민중을 기록하라—작가들이 발로 쓴 현대사: 전태일에서 세월호까지』, 실천문학, 2015, 546-549쪽.

여성사회연구회, 『10년의 발자취』, 여성사회연구회, 1986, 10-11쪽.

여성신문사, 『세상을 바꾼 여성 사건 101가지: 여성신문 뉴스 20년사, 한국 여성 20년사』, 여성신문사, 2008, 17쪽.

이계경, 『세상을 바꾸는 신나는 리더』, 여성신문사, 2007, 1-74쪽.

이정자, 『이 얼마나 멋진 배움이었나: 크리스챤아카데미와 한국여성인간화운동의 아름다운 동행』, 여해와 함께, 2025, 119-149쪽.

조형 외 편저,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3, 239-241쪽.

편집부 외 공저, 『아산의 향기』, 아산사회복지재단, 2020년 여름호, 56쪽.

논문
고정희,「김지하의 민중시는 남성중심적인가—70년대 우리 땅에 오신 하느님 어머니(2)」,『살림』 제11호, 한국신학연구소, 1989, 78-89쪽.
김명혜,「여성주의 저널리즘의 현황과 확산 전략」,『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2001, 429-435쪽.
김은하,「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팸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쪽.
김정은,「1980년대 여성주의 출판문화운동의 네트워킹 행위자로서 고정희의 문화적 실천」,『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 37-77쪽.
문지영,「'성평등'은 민주주의 문제인가?: 한국 민주주의 담론의 그늘」,『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38-73쪽.
박혜란,「토악질하듯 어루만지듯 가슴으로 읽은 고정희」,『또 하나의 문화 제9호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2, 53-99쪽.
원혜빈,「1980년대 '여학생'의 문화정치: 남녀공학 대학 여학생 교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140쪽.
이소희,「고정희 글쓰기에 나타난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 연구—80년대 사회운동 및 사회문화적 담론과의 영향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제3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221-18쪽.
이영미,「한국 근·현대 예술운동의 대중화론, 그 쟁점과 허실」,『민족문화연구』 제61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407-478쪽.
이한나,「1980년대 가족법 개정 투쟁과 박완서의 소설: 박완서,『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중심으로」,『인문과학연구논총』 제52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3-1쪽.
이혜령,「여성해방문학의 저자란 무엇인가」,『문학과 사회』 제125호, 문학과지성사, 2019, 59-72쪽.
정성조,「퀴어 민주주의를 위하여」,『문화과학』 제121호, 문화과학사, 2025, 150-169쪽.

정혜진, 「고정희 여성해방시의 집합적 형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1-330쪽.
조연정, 「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에서 페미니즘하기—김정란과 허수경을 읽으며」, 『구보학보』 제27호, 구보학회, 2021, 271-304쪽.
지은희, 「내부로부터 본 여성운동—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제22호, 한국사회이론학회, 2002, 99-150쪽.
최은아, 「1980년대 르포라는 재현 양식과 시대적 의의」, 『구보학보』 제25호, 구보학회, 2020, 171-211쪽.
허민, 「민주화 이행기 한국소설의 서사구조 재편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187쪽.
허윤, 「1990년대 페미니스트 여성 대중의 등장과 잡지 『페미니스트저널 if』의 정치학」, 『상허학보』 제53호, 상허학회, 2018, 85-117쪽.
황오금희, 「여성주의 매체와 여성운동」, 『여/성이론』 제8호, 도서출판여이연, 2003, 32-80쪽.
황정미,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경제와 사회』 제114호, 비판사회학회, 2017, 18-51쪽.

신문 자료

『동아일보』, 『여성신문』, 『이대학보』, 『인천투데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인터넷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 Abstract

Feminist Literature Networks and Women's Liberation Democracy in *The Women's News* during the Democratization Transition

Jung Hyejin
(Pusan National University Women's Research Institute)

This paper illuminates the feminist journalistic cultural movement of *The Women's News*, which navigated the dual landscape of "commercial mass media" and "activist politics journalism" during the late 1980s democratic transition. Focusing on first editor-in-chief Goh Jung-hee, this study examines the "feminist literature network" and the discourse of "women's liberation democracy" as a transition toward a feminist cultural movement. *The Women's News* functioned as a hub for solidarity. feminist literature network persisted despite organizational shifts. Those popular practices were multi-layered projects of "women's liberation democracy," which signified democracy as the realization of women's culture and deepened the democratic horizons of Goh's poetry. Furthermore, the weekly newspaper format served as a medium to bridge commercialism and activism. Within this structure, feminist literature embodied popular mediality while imprinting a vision of systemic transformation.

Key words: *The Women's News*, Feminist cultural movement, Feminist journalism, Popularization of the feminist movement, Feminist literature network, Women's liberation democracy, Goh Jung-hee

논문제출 / 2026.07.15.
심사완료 / 2026.08.08.
게재확정 / 2026.08.08.